

여성 농업인의 역할증대와 건강관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재규**

Key words: 여성 농업인(women farmer), agricultural activity(영농활동), 가사노동(housework), 삶의 질(quality of life), 건강관리(health manageme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women farmers' quality of life by their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and housework activities and the conditions of their health management. To explore this goal, it used sample data collected by a local research institute.

From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omen farmers who had excessively worked and have husband not share houseworks are less healthy, less satisfied with social relations, leisure and economic lives. And women farmers who had a poor management after childbirth and hypersensitivity are also less satisfi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 1. 서론
- 2. 문헌검토
- 3. 연구방법
- 4. 자료 분석 및 논의
- 5. 요약 및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농촌사회를 연구해 왔던 일부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여성 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정부의 정책지원 부족, 여성 농업인 스스로 건강관리 의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김경미 2003, 2004; 김영옥, 양승주 2000; 김영옥,

* 이 논문은 한국농촌사회학회(200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당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선생님과 농촌경제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김이선 2003; 김주숙 1994; 박대식 등 2002; 박재규 2003, 2004; 이호철, 최수영 2001; 전정숙 1994; 정기환 등 2002; 허미영, 박민선 2003).

여성 농업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2001년 '여성 농업인육성법'을 제정하여 여성 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었고, 광역자치단체 또한 여성 농업인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게 되었다. 정부의 여성 농업인에 대한 관심 증가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김여옥, 김경미, 박재규, 김이선 2005; 농림부 2001).

이처럼 여성 농업인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농활동과 농촌지역에서 여성 농업인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보호조치가 시급하다는 위기론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재규 2004). 즉 여성 농업인은 농촌경제에서 중요한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존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수행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중심적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생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김경미 2004), 의사결정참여 수준은 낮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부담도 줄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민선 1984; 박재규 2004; 이호철 등 2002; 허미영 2003). 더욱이 농촌경제활동의 시급성으로 여성 농업인은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며, 건강관리 의식도 낮아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박재규 2005).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 수준이나 건강관리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와 의사결정 참여,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여성 농업인의 만족도 등을 검토하며, 2)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건강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3)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수준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며, 4)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문헌검토

2.1. 한국농촌의 변화와 여성 농업인 역할 확대

한국농촌의 구조적 변화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추진에 따른 농촌인구의 대량유출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이 농촌문제와 여성 농업인 문제를 심화시켰다. 즉 정부의 산업화는 특정(도

시)지역에 산업시설과 자본을 집중시켜 농촌인구의 이동을 촉진시켰고, 인구의 도시 집중은 도시지역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학계의 연구 또한 도시지역 이주자와 그들의 적응문제에 집중되었다(윤근섭 1987; 김영기, 윤근섭 1990; Green 1978; Melville 1978). 다른 한편, 농촌인구의 대량이출사태는 1980년대 농촌지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일부 학자들이 농촌지역 문제를 “과소 현상”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지역 해체 현상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하기 시작하였다(황하연 1987; 윤근섭, 최낙필 1994).

농촌인구 감소는 젊은 청·장년층에 집중되었고, 이런 결과는 유아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로 이어져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을 촉발시켰다. 예를 들면, 15세 미만 농가인구는 1975년 39.3%를 차지하였지만, 2002년 10.7%까지 줄어들었고, 15-19세 농가인구도 같은 기간에 11.8%에서 5.4%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65세 농가인구는 5.6%에서 26.2%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3).

이런 변화는 여성 농업인의 증가와 역할 확대로 이어졌다. 먼저 농촌지역 남녀인구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에 비슷하였지만(남성 5,415천명 vs 5,412천명), 2003년 여성인구가 1,815천명(52%)으로 남성인구 1,715천명(48%)보다 많아졌다. 이런 차이는 60세 이상에서 보다 확대되었는데, 2003년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이 753천명(54.5%)으로 남성의 625천명(45.5%)에 비해 128천

명(9%) 많아졌다(통계청 2003). 그리고 여성 농업인 역할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농업주종사자의 경우 여성 농업인이 1970년 23.8%에서 2002년 52.5%로 증가하였지만, 남성농업인은 71.7%에서 47.5%까지 감소하였다(김경미 2004).¹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 시간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남성농업인의 연간 노동투하시간 비중이 1970년 67.4%에서 2002년 52.1%로 감소한 반면 여성 농업인 노동 투하시간 비중은 32.6%에서 47.9%로 증가하여 남성농업인 수준에 근접하였다(농림부 1999; 통계청 2003).

그러나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족 및 사회적 노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먼저 남편의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참여는 높지 않아서 여성 농업인 혼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박재규 2004). 더욱이 영농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남편이 독점하고 있어 여성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좌절시키고 있다(김경미 2004; 김영옥, 김이선 2003; 박민선 2004).

그리고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1982년부터 시작된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은 농가여성, 여성 농업인에게 1992년부터 농업후계자 기회를 부여하였다. 여기에 여성 농업인의 농업후계자 선정 비율도 20%로 매우 낮다. 특히 임신과 출산 등 여성의 독

¹ 농업 종사자자란 농가의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으로 농사에만 종사하였거나 혹은 농사와 더불어 농사 이외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농사 종사기간(혹은 농업수입)이 농사이외의 일 종사기간(혹은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인구를 의미함(농림부, 1999).

특한 역할이 여성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유은광 1995; 한국여성개발원, 1990), 농촌지역 병원시설의 부재와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여성들은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박재규 2003; 정기환 1997),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과 영농활동의 계절적 시급성으로 출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며, 건강관리 교육기회 부족과 건강관리 의식 부족으로 건강과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

2.2. 여성 농업인 삶의 질 논의

삶의 질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내용은 개인생활의 전반적인 '행복'이나 '복지'이며, 인간생활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만족감 등이 있다(김상균 등 1996). 다시 말해서 삶의 질 내용은 개인의 경제적 생활수준, 심리적/주관적 만족, 행복감, 주관적 복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임희섭 1996; 송정기, 박재규 2000).

삶의 질에 관한 초기 연구는 인간생활의 주관적 차원을 무시하고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객관적 차원에 초점을 둔 삶의 질 연구결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활만족 수준이 증가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현실과 괴리가 생겼고, 그 결과 사회 구성원의 전체 삶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관적 차원을 중시하게 되었다(Bauer 1966).²

² 그 후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척도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기존의 삶의 질 연구들은 여전히 객관적 차원이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경제·사회·정치영역의 수량적 지표에 집중되었다. 더욱이 연구 결과가 국민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과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도 수반하였다(김병관, 박준식 1995).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되었다(윤종주 1983; 한국개발연구원 1987).

최근 에반스(Evans)의 경험연구가 '삶의 질'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즉 에반스는 기존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상호 간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직업만족, 결혼만족, 재정만족, 지역사회만족, 결혼적응, 종교적 만족, 가족생활, 가족복지 영역을 삶의 질 척도로 구성하였다(Evans 1994).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삶의 질 연구가 최근 활성화되었다(김상균 등 1996; 한성덕 1996; 김영기, 박재규 2001).

최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농촌주민의 생활에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이

나 혹은 주관적 차원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Inkeles 1993). 왜냐하면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단일 차원적 척도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측정지표로서 사회지표, 생활수준, 기본생활수준, 의식조사지표를 제시하였다(박대식·최경환, 2002). 그리고 경험적 연구들 또한 농업에 대한 만족감을 비롯하여 농가의 수입과 경제생활 만족도, 지역사회 각종 행사 참여 만족감, 여가생활 만족감,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 내용을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김정숙, 정인숙 2002; 송정기, 박재규 2000; 이장영 2002; 이정화, 한혜경 2003; 허미영 2003).

이상과 같이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지만 이 연구의 경우 여성 농업인에 한정된 연구인 관계로 여성 농업인의 농업종사, 농가소득, 주거환경, 결혼생활, 이웃 및 친척, 가족구성원 관계, 취미활동, 모임참여, 그리고 마을이나 지역사회활동 참여, 농부중 중심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등 23개 문항을 사용하였고,³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이 연구는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

와 건강관리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 여성 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2003년 6-7월 전북발전연구원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이용하였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여성 농업인 건강과 복지 자료는 전라북도 12개 시·군 지역에서 여성 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들 자료 가운데 이 연구는 '부부가족' 여성 농업인 608명을 추출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2. 연구 내용 및 측정

이 연구의 핵심내용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이며, 그 주요 독립변수로서 역할 및 건강관리 문제이다. 먼저 여성 농업인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하였다. 즉 여성 농업인의 역할확대란 영농활동 참여와 영농활동에서 의사결정 참여 수준, 그리고 가사노동의 경우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 가사노동 부담감,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평가 등으로 규정하고 <표 1>과 같이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의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여성 농업인의 중절 경험과 출산 후 영농활동 면제 정도, 출산 후 산후조리,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서 산후조리 실패 등이며, <표 2>와 같이 측정하였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내용으로는 여성 농업인의 건강(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비롯하여 사회관계, 여가생활, 경제수준에 대한 23개 문항을 5점 척도(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고, 이들

³ 농부중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증후군을 묶어서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방뇨, 호흡 곤란, 불면, 어지럼증, 복부 팽만감 등 8가지 장애를 기준으로 진단하고 있다(남승택 1976; 맹광호 1980).

표 1.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 가사노동 관련 내용 측정

구성	주요 내용	측 정
영농활동	농번기 및 농한기 영농활동 참여	시간(단위)
	노동력부족 정도	1 매우 부족 ~ 4 부족하지 않다
영농활동 의사결정	품종선택, 영농자재, 농지 구입, 농산물 판매대금 사용	1 남편/시부모 결정, 2 남편중심, 3 부인중심, 4 부인결정
가사노동	가사노동참여 (음식 만들기, 설거지, 장보기, 청소하기, 아이돌보기)	1 남편전담, 2 남편보조, 3 부인전담, 4 기타(타인고용)
	여성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	1 전혀 없다 ~ 5 매우 크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만족	1 매우 만족 ~ 5 매우 불만족

표 2. 여성 농업인의 출산 및 건강관리 내용 측정

구 성	주요 내용	측 정
출산관리	임신 및 중절	횟수(단위)
	출산 후 가사노동과 영농활동 면제	1 쉬지 못함, 2 3일 휴식, 3 1주일 이상 휴식
	산후 조리 실패 여부	1 해당 없음, 2 해당됨
건강관리 (긍정, 부정 요인)	과다한 노동	1 해당 없음, 2 해당됨
	과다한 스트레스	1 해당 없음, 2 해당됨
	농사 사고	1 해당 없음, 2 해당됨
	건강식품 복용	1 해당 없음, 2 해당됨
	가끔 운동	1 해당 없음, 2 해당됨
	병원 진찰	1 해당 없음, 2 해당됨
	충분한 영양공급(식사)	1 해당 없음, 2 해당됨

23개 문항을 이용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표 3>과 같이 5개 삶의 질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내용 가운데 육체적 건강은 ‘농부중’ 증상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정신적 건강은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회관계는 부부, 가족 구성원, 친척, 이웃관계를, 여가생활은 취미활동, 모임참여, 마을이나 지역사회활동을, 경제수준에는 농사일 만족과 농가 수입만족, 그리고 주거환경 만족 등이 포함되었다.

끝으로 농촌지역 사회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 변수로서 여성 농업인의 연령, 교육수준, 농가의 총소득과 부채 총규모 등을 검토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논의

4.1. 여성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표 4>는 여성 농업인과 그 배우자의 연령, 교육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연령의 경우 남성농업인 평균이 55세로 여성

표 3.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구성 내용, 요인 분석, 그리고 신뢰도

삶의 질 구성 내용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관계	여가생활	경제수준
허리 통증	.670	.055	.047	.035	.027
목 디스크	.727	.042	.161	.018	.068
손목 저림	.703	.224	.014	.059	.005
어깨 통증	.719	.090	.099	.066	.097
호흡 곤란	.655	.112	.256	.114	.127
관절염	.673	.122	.066	.091	.008
피부 질환	.501	.187	.251	.103	.167
시력 약화	.507	.307	.073	.119	.129
피로 정도	.389	.554	.125	.171	.016
농사 의욕	.088	.709	.045	.087	.131
미래 불안	.096	.764	.050	.122	.176
삶에 대한 애착	.195	.780	.211	.003	.053
식욕 부진	.244	.686	.159	.028	.059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	.049	.180	.133	.029	.818
농업소득(보상)에 대한 만족	.028	.144	-.031	.240	.826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075	.041	.336	.312	.501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135	.141	.614	.248	.280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	.108	.089	.761	.124	.031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만족	.027	.061	.887	.071	.073
친척 간의 관계 만족	.016	.099	.829	.102	.054
취미 활동에 대한 만족	.036	.102	.272	.751	.166
모임 참여에 대한 만족	.018	.229	.116	.680	.324
마을, 지역활동 참여 만족	.020	.047	.065	.848	.131
고유치(Eigenvalues)	5.517	3.115	1.981	1.533	1.063
설명분산(%)	23.99	13.54	8.61	6.66	4.62
신뢰도(Cronbach's Alpha)	.813	.797	.777	.755	.700

표 4. 여성 농업인 및 그 배우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비교

구분 내용	범주	여성 농업인			배우자		
		빈도	비율	평균	빈도	비율	평균
연령	30대 이하	115	18.9	X=50.84	49	8.1	X=54.91
	40대	176	29.0		186	30.6	
	50대	160	26.3		161	26.4	
	60대 이상	157	25.8		212	34.9	
	합계	608	100.0		608	10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81	46.2	-	270	44.4	-
	중학교	130	21.4		129	21.2	
	고등학교	164	27.0		162	26.6	
	초대졸 이상	33	5.4		47	7.8	
	합계	608	100.0		608	100.0	

농업인 51세보다 4세 높은데, 이런 차이는 농업인이 더욱 더 낮았다. 즉 초등학교 이하 한국 사회 결혼 남녀의 연령 차이를 반영 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 46.2%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과 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배우자 또한 그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양자 모 44.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초대졸 이 두의 교육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 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농업인은 5.4%로 적

표 5. 여성 농업인 농가의 소득과 부채 규모 분석

구분	범주	빈도	비율	비고
1년 전체 평균 소득	500만원 미만	100	16.4	평균 = 1,661만원
	500-1,500만 원	103	16.9	
	1,500-2,000만 원	141	23.2	
	2,000-3,000만 원	181	29.7	
	3000만 원 이상	83	13.7	
농가의 평균 부채규모	없음	121	19.9	평균 = 4,436만원
	1,000만 원 이하	53	8.7	
	1,000-3,000만 원	155	25.5	
	3,000-5,000만 원	90	14.8	
	5,000-1억원	104	17.1	
	1억 원 이상	85	14.0	
	합계	608	100.0	

표 6. 여성 농업인의 농번기 및 농한기 농업활동 참여

단위: 시간, %

참여시간	구분	농번기		농한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참여 않음)		-	-	100	16.4
5시간 이하		70	11.5	385	63.3
6 - 8시간		151	24.8	92	15.2
9 - 12시간		321	52.8	31	5.1
13시간 이상		66	10.9	-	-
합계		608	100.0	608	100.0
평균		10.31		4.38	

었고, 그 배우자의 경우 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5>는 2002년 농가의 연간 소득과 2003년 부채를 분석한 것인데,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먼저 농가의 연간 소득 평균은 1,661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부채 규모는 4,436만원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약 3배에 이르고 있어 농가의 경제생활 어려움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다른 한편, 부채가 없는 농가는 전체 응답자의 19.9%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80%는 부채가 있었고, 이들 중에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8.7%로 적었지만 5,000만 원 이상 농가가 31.1%로 많아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4.2. 여성 농업인의 역할 확대 분석

이 연구는 여성 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서 영농활동과 가사노동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6>에 의하면, 여성 농업인의 농번기와 농한기 영농활동참여 시간은 각각 10.3시간과 4.4시간으로 나타났다. 농번기 영농활동 참여시간은 노동자의 평균 근무시간 8시간보다 2시간 이상 긴 것으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농한기의 경우는 4.4시간

표 7.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의사결정과정 참여 분석

단위: %, 명

유형	의사결정 남편이나 시부모 결정	남편 중심에 부인과 상의	부인 중심에 남편과 상의	부인 결정	합 계	
					비율	빈도
품종선택	20.8	68.9	7.5	2.8	100.0	602
영농자재 구입	22.2	70.3	4.4	3.2	100.0	595
농지구입/매각	20.1	72.8	4.7	2.4	100.0	593
농산물 판매금 사용	17.8	68.5	10.3	3.4	100.0	594

표 8. 여성 농업인과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분석

단위: %, 명

가사노동 유형	참여 정도	남편 전담	남편 참여	부인 전담	합 계	
					비율	빈도
음식 만들기		0.7	8.2	91.1	100.0	597
설거지		0.8	8.2	91.0	100.0	597
장보기		2.0	16.7	81.3	100.0	594
세탁하기		0.8	4.5	94.7	100.0	599
청소하기		1.9	12.1	86.0	100.0	594

표 9. 여성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감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평가

남편 참여 평가 구 분	남편 참여 평가					합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빈 도	16	95	206	164	80	561
비 율	2.9	16.9	36.7	29.2	14.3	100.0

으로 길지 않았다. 그렇지만 농한기에 영농 활동 참여가 없는 여성 농업인 16.4%를 제외하면 나머지 80% 이상은 영농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들 가운데 6시간 이상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은 20.3%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여성 농업인은 장시간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즉 노동력 부족을 겪지 않은 농가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 미만인 반면 80% 이상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31.7%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박재규 2005).

다른 한편, <표 7>에 의하면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의사결정 참여는 10%로 낮았다. 반면에 남편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남편 중심으로 부인과 상의하는 경우가 약 9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가 남성농업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지만,⁴ 영농활동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 농업인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⁴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이 연구의 문헌검토에서 소개한 김경미(2004), 농림부(1999) 참고.

표 10. 여성 농업인의 임신 및 중절 경험 분석

구 분	임신 회수		중절 경험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없 음	11	1.8	301	49.5
1 회	15	2.5	178	29.3
2 회	90	14.8	81	13.3
3 회	184	30.3	30	4.9
4 회	110	18.1	6	1.0
5 회	83	13.7	9	1.5
6 회	54	8.9	1	.2
7 회 이상	61	10.0	2	.3
합 계	608	100.0	608	100.0
평 균	3.87		.85	

표 11.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가사노동과 영농활동 면제) 실태 분석

활동내용	가사노동		영농활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 후 휴식				
바로 시작	101	17.1	92	16.2
3일 동안 쉬었다	108	18.3	84	14.8
1주일 정도 쉬었다	154	26.1	135	23.7
2주일 정도 쉬었다	101	17.1	86	15.1
3주일 이상 쉬었다	127	21.5	172	30.2
합 계	591	100.0	569	100.0

이 연구는 또한 농가부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내용에 청소하기와 장보기의 경우 15-20%로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음식 만들기와 설거지 그리고 세탁하기 등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이처럼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매우 낮은 편인데,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여성 농업인 평가 결과도 부정적이다. <표 9>에 의하면, 여성 농업인 19.8%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반면 43.5%와 36.7%는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에 비해 가

사노동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불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여성 농업인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3.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건강관리 실태 분석

<표 10>은 여성 농업인의 임신과 중절 경험에 대한 분석인데, 평균 임신 및 중절 회수가 각각 3.87과 .85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농업인의 임신 분석에 의하면, 3회 임신한 여성이 3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회, 2회, 그리고 5회 임신한 여성 농업인이 각각 18.1%, 14.8%, 그리고 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6회 이상 임신한 경우도 18.9%로 나타났다.

표 12. 여성 농업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실천과 경험 비율 분석

구분	빈도	비율*
건강 관련 행위 요인		
영양제 및 건강식품을 복용한다	120	19.7
가끔 운동을 한다	135	22.2
건강검진을 가끔 받고 있다	100	16.4
균형을 이루는 식사를 하고 있다	161	26.5
일을 너무 많이 하였다	281	46.2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205	33.7
농사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다	39	6.4

* 각 요인에 대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608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다음으로 중절 경험 분석에 의하면 중절 경험이 없는 여성 농업인은 아직 임신 경험이 없는 1.8%를 포함하여 49.5%로 나타났다. 나머지 50%는 중절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회가 29.3%로 가장 많았으며, 2회와 3회가 각각 13.3%와 4.9%로 나타났고, 4회 이상인 경우는 3.0%로 나타났다.

<표 11>은 출산 후 여성 농업인의 산후조리를 분석한 것인데, 가사노동이나 영농활동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출산 후 바로 가사노동이나 영농활동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이 각각 17.1%와 16.2%로 나타났다.⁵ 반면 나머지 80% 정도는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고, 이들 가운데 18.3%와 14.8%는 3일 동안 쉴 수 있었으며, 26.1%와 23.7%는 1주일 정도 산후조리 시간을 가졌으며, 그리고 나머지 약 40%는 2주일 이상 산후조리 휴식시간을

가졌다.

<표 12>는 여성 농업인의 생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위를 분석한 것인데, 먼저 전자는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하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26.5%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1/4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식품을 복용하거나 혹은 가끔 운동을 하는 사람은 각각 20%를 차지하였고, 건강검진을 받는 여성 농업인은 16.4%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여성 농업인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나친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던 여성이 각각 46.2%와 3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4.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수준 분석

<표 13>은 여성 농업인의 생활과 관련된 23개 문항을 사용하여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관계, 여가생활, 경제수준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검토한 결과이다.

먼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내용 가운데 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⁵ 자녀출산 이후 바로 가사노동이나 영농활동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의 경우 5-9월 농번기에 출산한 경우가 농한기에 출산한 경우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계절적 효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영역별 만족상태 분석

삶의 질 영역	만족 수준	불만족	보통	만족	합 계
육체적 건강		34.6	45.7	19.8	100.0(567)
정신적 건강		30.9	47.7	21.4	100.0(583)
사회관계		16.0	42.8	41.3	100.0(601)
여가생활		47.7	36.3	16.0	100.0(595)
경제수준		52.5	35.6	11.9	100.0(598)

표 14.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영역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속변수	육체적 건강 B	정신적 건강 B	사회관계 B	여가생활 B	경제수준 B
상 수		3.135***	2.351***	13.442***	12.607***	11.671***
연 령		-.010	-.005	-.006	-.014	-.019
교육수준		.024	-.035	.007	.052	.208
농가소득		.001	.001	.001	.002	.001
농가부채		-.001	-.001	.002	-.053	-.004
농번기노동		.005	.013	.084	-.053	-.012
일손부족		.039	.127	.351	.133	.309
지나친 노동		-.158	-.132	.170	-.148	.214
의사결정참여		.008	.001	.025	.026	.066
가사노동참여		-.061	.016	-.047	-.100	-.051
가사노동 부담		-.030	-.031	.171	-.388	-.299
남편참여만족		-.006	.119	.544	.331	.365
중절회수		-.062	.010	.026	.133	.105
출산 후 영농활동 면제		.045	.019	.327	.153	.015
산후조리실패		-.143	-.191	-.470	-.224	-.122
과다 스트레스		-.218	-.191	-.333	-.014	-.287
건강식품복용		-.065	-.046	.607	.073	.354
운동		.095	.085	.509	.304	-.053
건강검진		-.089	.034	-.147	.754	-.019
균형식사		.158	.139	.011	.415	.241
주거환경		.045	.051	-.011	.153	.211
Adjusted R Square		.370	.226	.146	.204	.173

+ p<.06, * p<.05, ** p<.01, *** p<.001

영역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 중에 ‘사회관계’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41.3%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여성 농업인 16.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4가지 삶의 질 내용의 경우 만족보다 불만족 상태에 있는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높았다. 먼저 ‘경제수준’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여성 농업인이 52.5%

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 11.9%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여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 농업인도 47.7%로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 농업인 16.0%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이었는데, 먼저 농부증을 비롯한 각종 증상으로 측정된 ‘육체적 건강’의 경우 34.6%가 부정적으로 평가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19.8%보다 2배 많았고, 농업 미래를 비롯한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정신적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여성 농업인도 30.9%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성 농업인 21.4%에 비해 10%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수준은 경제수준과 여가생활에서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관계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가지 삶의 질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먼저 여성 농업인의 인구-사회적 변수들 중에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과 농가부채로 나타났다. 즉 연령은 여성 농업인의 육체적 건강과 경제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나이가 많은 여성 농업인일수록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수준에 대한 불만족도 높았다. 다른 한편 농가의 부채는 여성 농업인의 여가생활과 경제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채가 많은 농가의 여성 농업인일수록 여가생활과 경제수준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농촌지역 부채가 농가의 경제수준과 여성 농업인의 여가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노동참여도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농번기 영농활동참여 시간은 그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참여와 관련된 일손부족이나 과중한 영농활동참여, 그리고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나치게 노동을 한 여성 농업인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부정적인 반면에 영농활동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성 농업인은 경제수준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가사노동 관련 요인 가운데 가사노동 부담이 큰 여성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여가생활과 경제수준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여성 농업인은 정신적 건강이 양호하고 사회관계, 여가생활, 경제수준 모두에서도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여성 농업인의 출산 관련 요소는 건강과 사회관계 및 여가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절경험이 많은 여성 농업인일수록 육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오랫동안 한 여성은 육체적 건강, 사회관계, 여가생활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반면 산후조리에 실패한 여성의 경우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회관계도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건강관리 요인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건강식품을 복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여성 농업인은 여가생활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 농업인 또한 여

가생활에 긍정적이었고, 특히 영양소가 충분한 식사를 하는 여성의 경우 건강과 여가생활에 긍정적이었다.

끝으로 여성 농업인의 주거환경 또한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거 환경이 좋은 여성 농업인일수록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여가생활과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 높았다.

이상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설명력은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육체적 건강에 대한 설명력이 약 3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관계 설명력은 약 15%로 가장 낮았다.

5.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는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여성 농업인 60% 이상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은 노동력 부족을 느끼고 있어 영농활동 참여에 따른 업무가 과중함을 엿볼 수 있으며, 실제로 여성 농업인 가운데 과반수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대한 영향력은 낮고, 가사노동 부담이 큰 편이며,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여성 농업인 가운데 중절을 경험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출산 이후

산후관리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가사노동이나 영농활동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도 17%를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는 농번기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 농업인의 경우 특히 많았으며, 여성 농업인 건강 향상을 위한 영양제 복용이나 운동, 충분한 식사, 그리고 건강검증 등은 높지 않은 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노동이나 지나친 스트레스로 고생한 경우는 약 40%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 농업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연령과 부채가 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은 여성 농업인일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경제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농가 부채가 많은 경우는 여가생활과 경제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다. 그리고 영농활동 및 가사노동 관련 내용의 경우 일손부족을 느끼거나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특히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만족을 느끼는 여성 농업인은 정신적 건강과 사회관계, 여가생활, 그리고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 이후 산후조리 관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산후조리에 실패한 여성 농업인의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출산 후 오랫동안 산후조리를 한 여성의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특히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여성 농업인의 연령, 과다노동,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출산 후 산후조리, 주거 환경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이들 내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 농업인의 연령과 관련된 중요한 함의는 농촌지역사회의 노령화 현상이다. 즉 여성 농업인 가운데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제생활도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촌·노인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설의 강화가 매우 시급하며,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농촌지역 복지제도의 강화도 필요하다. 노인의 경우 병원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 보건지소의 기능 및 이동진료소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적으로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농촌주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하고 경로연금에서 제외된 노인의 경우 수혜가 가능하도록 농촌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남편 배우자의 가사노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은 일차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즉 농번기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 의한 농촌일

손 돕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각 농촌지역(특히 군청 중심)은 대학교, 기업이나 사회단체와 '1촌1사'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망을 구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지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대학생의 자원봉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보급 받을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유익할 프로그램(즉 지역사회 유적탐방, 지역 주민과의 화합 축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남성 중심적 유교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사노동 참여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성농업인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성농업인 관련 교육 과정에 양성평등문화, 가사노동참여의 필요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성 농업인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가 건강과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가도우미 제도의 강화를 비롯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90일까지 확대하였지만, 여성의 영농활동참여 시급성을 고려할 경우 장기간 농사일을 중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도우미

지원제도는 이용범위의 확대와 지원 단가의 현실화, 농가도우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실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험제도 도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임신과정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특례제도’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경미. 2003. “여성 농업인 법적 지위의 문제와 개선 방안.” 여성 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농촌 생활연구소.

_____. 2004.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방안.” 『농정연구』 11(가을): 91-125.

김병관, 박준식. 1995. “삶의 질 연구의 필요성과 기존 연구의 검토.”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11-24.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김상균 등. 1996.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김영기, 박재규. 2001. 『IMF 경제위기. 실직위협, 그리고 삶의 질』. 나눔의 집.

김영기, 윤근섭. 1990. “농촌가구의 이출과 적응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연구』 창간호: 33-94. 전북대 농촌사회발전연구소.

김영옥, 김경미, 박재규, 김이선. 2005. 『여성 농업인육성5개년계획 중간 평가』. 농림부.

김영옥, 김이선. 2003. 『2003년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 농림부.

김영옥, 양승주. 2000.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농림부.

김정숙, 정인숙. 2002. “일부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 상태 관련 요인 분석.” 『농촌사회학』 12집(2): 29-49.

김주숙. 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 아카데미: 서울.

남승택. 1976. “농부층에 대하여.” 『한국농촌의 학회지』 1(1): 1-47.

농림부. 1999.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맹광호. 1980. “한국 농촌주민의 농부층에 관한 연구.” 『인간과학』 4(10): 45-51

박대식 등. 2002. 『여성 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농림부.

박대식,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민선. 1984. 8. “농가의 의사결정과 부녀자의 역할.” 『농협조사월보』.

박재규. 1999. “IMF 경제위기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평론집』 5: 100-130.

_____. 2003. 『전북지역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육구 연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_____. 2004. “여성 농업인의 노동 실태와 건강 문제.” 『농정연구』 11(가을): 47-79.

_____. 2005. “여성 농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17: 33-56.

송정기, 박재규. 2000. “IMF관리체제하에서의 농촌주민 삶의 질.” 『한국사회학』 34(가을): 595-619.

유은광. 1997. “여성의 건강 상태와 산후조리 경험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 193: 74-90.

윤근섭. 1987. “농촌인구의 이출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 학위 논문.

윤근섭, 최낙필. 1994. “과소지역의 구조와 사회적 결속에 관한 연구: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8(겨울): 85-115.

윤종주. 1991. “한국사회의 사회지표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발전』. 서울여자대학교. pp. 807-902.

이장영. 2002.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생활만족도 비교.” 『농촌사회학』 12(1): 89-110.

이정화, 한경혜. 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생활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 『농촌 사회학』 13(1): 209-238.
- 이호철, 최수영. 2001. “지역 여성농민의 실태와 정책적 대안 제시.” 『경상논집』 29(1).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 행정연구』 5(1): 5-18.
- 전정숙. 1994. “농업 유형별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정기환.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 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등. 2002.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농림부.
- 통계청. 2003. 『2002 농업 기본통계조사 결과』.
- 한국개발연구원. 1987. 『우리나라의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 한국여성개발원. 1990. 『우리농촌과 여성』.
- 한성덕. 1996. “삶의 질 지표체계의 구상.” 『21C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망과 과제』. pp. 35-73.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황하연. 1987. “과밀, 과소의 경제학적 고찰.” 『새마을연구』 1: 137-51. 한양대학교 새마을연구소.
- 허미영. 2003. 환경농가 여성의 노동과 농사일 만족도.” 2003년도 한국농촌사회학회 발표문.
- 허미영, 박민선. 2004. “여성 농업인의 경영참여 실태와 그 결정요인.” 『농촌사회』 14(1): 205-227.
- Bauer, R.A. (ed.). 1966. *Social Indicators*. MIT Press. Cambridge.
- Evans, D.R. 1994.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1-3).
- Green, Sarah. 1978. “Migrant Adjustment in Seoul, Korea: Employment and Hous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2.
- Inkeles, Alex. 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4(1-2):1-23.
- Mellville, M.B. 1978. “Women to Adopt to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2.

■ 원고 접수일 : 2005년 10월 7일
 원고 심사일 : 2005년 11월 2일
 심사 완료일 : 2005년 12월 29일